

# 南北韓 언론 교류와 협력의 방안 모색

강 현 두\*

<차>

- |                             |                         |
|-----------------------------|-------------------------|
| 1. 이질화된 남북언론                | 4. 남북 언론 교류를 위한<br>선결과제 |
| 2.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br>관계       | 5. 통일지향의 언론모색           |
| 3. 남북언론 교류 논의의<br>현황-방송의 경우 | 6. 분단극복을 위한 언론의<br>역할   |

## 1. 이질화된 남북 언론

북한의 언론은 남한의 언론과는 상이한 언론 철학과 사상을 갖고 있다. 즉 사회주의 국가로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언론 철학에 근간을 두면서 북한 사회의 기본 사상인 주체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 북한의 언론 교과서인 『신문리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 신문리론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일반적인 리론에 확고히 텁작하면서도 그것을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창조적으로 구현한 우리의 당적 신문활동 경험의 총화로, 직접적으로 우리 신문들의 실천활동에 이마지 할 산론으로 되어야한다. 여기로부터 우리신문 이론분야에서의 주체에 대한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된다.”(배순재, 라두림, 1967:6)

북한 언론철학의 기본적인 성격은 일제 하 항일 혁명투쟁기의 보도출판활동에 의해 형성되었고 그 후 1970년대 주체사상이 강조될 때 북한 언론은 그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주장하게 된다. 즉 이전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언론 철학에 기초를 두고 언론의 선전적 조직적 역할에 그 강조점을 둔 반면 이 시기부터는 소위 김정일의 언론 사상으로 표현되는 주체의 출판 보도물로 그 성격이 전환된다.

이러한 북한의 언론 철학은 방송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그것의 역

\* 서울대 신문학과 교수

사적 시점과 그 뿌리를 김일성의 항일투쟁 전통에서 찾고 있다. 즉 1945년 10월 14일, ‘조선중앙방송’이란 이름으로 김일성의 귀국 환영식을 중계하면서 김일성의 소위 ‘조국개선연설’ 중계를 북한 최초의 방송으로 삼고 있으며, 이 날을 북한 방송의 창립일로 기념하고 있다.<sup>(1)</sup>

북한방송에 있어서 항일투쟁의 전통은 기본적으로 김일성의 항일투쟁기라는 특수성을 강조함으로써 김일성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주체형 사회질서의 재생산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나아가 평소의 북한 방송에 있어서 이러한 이념형의 강조는 결과적으로 북한방송이 전체인민을 사회주의 혁명에 동원시키며 전인민의 주체적 정치사회화를 달성케 하는 주요 메카니즘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출판보도사업<sup>(2)</sup>에 대한 조선 노동당의 방침을 해설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언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간하시고 지도하시는 새형의 주체의 출판 보도물’이다(조선노동당 1985: 6). 이 정의에 의하면 북한 언론의 근본적인 성격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주체’의 언론이고, 나머지 하나는 ‘김일성주의 혁명’의 언론이다.

따라서 북한의 언론은 이른바 ‘수령님’께서 이루한 빛나는 혁명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수령님’께서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것을 숭고한 목적으로 삼게 된다. 이를 위해 북한의 언론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주체적인 출판 보도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있다(조선노동당 1985: 9). 이와 같이 북한의 언론은 궁극적으로 김일성 유일사상을 국내외에 교양하며, 김일성 유일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는데 앞장서는 도구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북한의 언론은 당의 일사불란한 통제 아래에 놓여 있고 북한의 언론인들은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다.

이처럼 북한의 언론은 그 기본적인 사상과 그것이 그 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임무에서 남한의 언론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북한의 방송창립일이 갖는 방송사적 의미는 일차적으로 북한방송이 그 역사적 기원을 일제의 식민지 방송에 기초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며 나아가 “김일성”의 평양개선연설 중계일을 방송개시일로 삼음으로써 김일성 유일체제를 강고히 하려는 합축을 갖고 있다. 이 점에서 남한의 방송과는 정통성을 달리한다.

(2) 북한은 언론이라는 용어 대신 ‘출판 보도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 2. 국제 정세의 변화와 남북 관계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되고 동북아에 있어서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짐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과 남북교류의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사회 각 영역에서 통일의 문제가 논의되고 남북 교류가 시도되었다. 정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남북교류가 활발히 시도되고 또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 9월 남북한 총리가 서울과 평양을 번갈아 가며 방문 회담을 가졌고 남의 노태우 대통령은 북의 연형묵 총리를 접견했고 북의 김일성 주석은 남의 강영훈 총리를 접견했다. 1990년 10월 말에는 남북한 예술인들, 체육인들의 남북교류도 활발했다. 남북한 영화인들이 뉴욕에서 모여 통일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영화의 남북교류를 합의했고 남북의 체육인들이 각각 평양과 서울에서 통일축구경기를 벌여 체육의 남북교류를 시작했다. 남북한 음악인들도 평양과 서울에서 통일음악회를 열어 감격스러운 음악의 교류를 시작했다.

1991년에는 남북한 예술인들과 체육인들이 합동으로 연주회를 갖고 합동으로 경기 출전을 가졌다. 1991년 5월 일본 후쿠이 시에서 열리는 국제예술제에서 남북한 음악이 합동연주회를 가짐으로써 음악의 남북통일이 시도되었다. 1991년 4월 일본 지바에서 열리는 세계 탁구대회에 남북한의 탁구팀이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 출전하여 금메달을 따냈다. 또 5월에는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해 서울과 평양에서 평가전을 가졌고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였다. 스포츠에서 남북통일의 시도가 이렇게 시작되었다.

통일은 더 이상 꿈 속의 소원만은 아니다. 통일은 우리에게 멀리있는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 다가오는 피부로 느끼는 가까운 문제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회 각 분야에서는 통일지향의 활동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제각기 남북교류의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같은 개방은 남북교류의 시대를 맞이하여 언론과 언론인들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이 모색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남북의 언론이 서로간의 체제에 대한 재검토와 상호 개인식을 통한 통일지향적인 언론정책의 수립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언론은 너무나 오랫동안 분단의 시대, 대립의 시대, 그리고 이념의 시대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냉전의 현실과 환경 속에서 남북 언론은 각각 그 체제와 이념을 확대 재생산해 왔고 지금도 그리하다. 각기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의 단점만을 주로 보도하고 홍보해 왔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들어 언론사들에는 북한관계 부서가 신설되면서 북한 뉴스를 실은 면이 마련되고 북한뉴스가 늘어났다. 88년 12월 서울신문이 북한 부를 신설하고 그 뒤를 이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등이 북한부를 만들었다. 1~2년 사이에 각 신문이 북한부를 다투어 신설한 것은 통일 열기의 논의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이에 따라 ‘북한 바로알기운동’이 확산되면서 북한의 실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도하기 위한 언론으로서 사명감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부의 위상이 아직은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고 활약도 큰 편은 못된다.

북한보도에 있어서 난점과 문제점은 첫째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자료가 부실하다는 점이다(황석현, 1990: 4). 주로 의존하고 있는 정보는 내외통신과 외신 그리고 최근 귀순해온 사람들의 증언 정도이다. 내외통신은 언론기관과 정부 및 민간 연구단체 등에 북한 뉴스를 공급하는 특수통신으로 언론사들은 대개 북한에 대한 정보를 내외통신으로부터 얻는다. 그러나 이 통신이 제공하는 북한 뉴스나 자료가 일방통행적 형식이고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순발력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제공하는 뉴스나 자료의 잣대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좀 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로는 북한에 대해 보도하는데 있어 외신을 맹종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북한 보도에서 외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러나 외신이 전하는 북한 보도중에는 흥미 위주의 루머성 기사나 해설이 적지 않다. 이런 것들을 잘 골라내어야 하는데 오히려 대서특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짚어 반성해야 할 점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 부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 즉 통일원이나 국가안전기획부의 출입담당기자를 북한부서 기자로 배정하여 북한에 대한 정보 접근을 더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러한 국가기관도 비밀주의의 관행에서 벗어나 언론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

방송사에도 북한관계부서가 설치되고 북한관련 뉴스와 북한의 텔리비전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나 편성형태는 아직 방송기관

의 직접적인 취재와 제작에 의존해서 마련된 프로그램이나 뉴스가 아니라 방송사의 의적 기관의 “내용 공급”에 의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나 뉴스내용이다. 말하자면 의적이며 간접적인 제작의 프로그램이다. 뿐만아니라 방송사의 자발적인 방송의 남북교류 움직임이 의적으로 봉쇄되어 왔다. 이 결과 방송은 불가피한 현실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분단현실의 재생산에 기여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세계는 급격히 변하여 냉전과 이념의 대결시대는 물러가고 개방과 화해 그리고 교류의 시대가 시작됐다. 대외적으로는 남한의 노태우 대통령이 소련을 방문했고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경험했고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 속에서 방송도 마땅히 통일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수동적이며 객체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이며 주체적인 자세로 거듭나야 한다. 방송은 변화와 교류의 사건에 대한 단순한 기록자나 보도자에서 벗어나 통일의 추진자로서, 통일운동의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스스로의 자세 변화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방송은 통일의 객체에서 주체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동서독의 경우 세계 냉전 구도 속에서 긴장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동방정책의 결실로 1972년 동서독의 기본조약이 이루어졌고 이와 동시에 동서독간의 상주기자 교류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 해 11월에는 이미 동서독간에 상주기자 교류와 이들의 활동에 대한 양독일의 관련 책임자간에 편지 교류가 있었고 동독은 이에 따라 동독에서의 기자활동에 대한 규정을 1973년에 만들었다. 그러나 동서독 방송국간에 공식적으로 협력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그후 14년이 지난 1987년 5월로서 동독의 텔레비전 방송국과 서독의 ARD 간에 TV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정서가 처음으로 체결되었던 때이다. 한편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들의 TV프로그램을 방영하기 시작한 것은 1973년 서독 방송의 수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이후였다. 즉 서독 TV와의 시청률경쟁에서 동독 TV는 동독 국민들의 시청율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와는 달리 실용적인 편성정책을 펴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서독 TV프로그램 까지 동독 TV에서 방영되었지만 이는 공식적인 방송 프로그램의 교류에 의한 방영은 아니었다. 동서독간에 프로그램의 공동제작이나 방송기술상의 협력 및 방송위성의 공동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는 동백립사태 이후 통일 논의

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처음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이정춘, 전석호, 1991: 274-275).

서독의 방송은 서독과 동독의 방송가교 역할을 강조하면서 독일 통일 문제를 ‘독일문제’로 묶어서 객관화된 정보와 지식을 알리는데 역할을 두었다.<sup>(3)</sup> 이러한 서독의 방송 내용은 동독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었고 동서독의 통일로 가는데 미리 발판을 닦아 놓았던 것이다.

이렇듯 동서독 통일에 대한 분야별 기여도를 놓고 볼 때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다. 그것은 서독의 언론이 서방 세계의 뉴스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동독의 국민적 성향을 서독으로 끌어 오고 그들의 가치, 인식, 태도 등을 서독 국민 수준으로 끌고 나갔기 때문이다. 특히 동서독 통일을 동독민의 선택에서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동독민의 서독 언론에 대한 신뢰는 아주 큰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로서도 언론이 통일 문제 해결의 첨병으로서 남북의 두꺼운 정보 차단벽을 뚫고 민족의 동질성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동서독간의 방송교류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사실상 성숙된 남북한간의 관계성립과 상호 신뢰성의 누적을 바탕으로하는 방송교류가 통일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간의 화해와 신뢰를 구축하고 동시에 방송인 스스로도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남북방송인들이 함께 모여 통일지향적인 방송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제는 서서히 남북방송 자체의 교류가 시작되어야 할 때이다.

### 3. 남북언론 교류 논의의 현황

#### —방송의 경우—

1990년 7월에 실시된 “남북방송교류”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7.0%가 방송교류가 남북간의 이데올로기 대립을 완화시키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전체의 61.1%가 5년이내에 방송교류가 가능하리라고 희망하

(3) 많은 물적 교류와 인적 교류를 통해 서로의 장단점을 알 수 있었고 적어도 51년 베를린 협정 이후에는 신문 잡지가, 또한 72년 기본조약 이후에는 라디오 텔레비전이 국경을 넘어 교류됨으로써 심정적으로 하나의 민족이라는 문화통합을 이루고 있었다.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응답자의 60.2%가 신문이나 잡지보다 방송(텔리비전, 라디오)의 교류가 더욱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여론 조사결과는 우리국민이 전체적으로 남북방송교류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방송교류에 대해 체계화된 논의의 개진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 장에서는 우선 남북방송교류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그의 논의구조가 어떠한 가를 정리해 본다. 그리고나서 체계화된 남북방송교류의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북한방송에 대한 교육과 연구는 오랫동안 한국방송학에서 제외되어왔다. 한국방송론은 남한의 방송만을 다루는 분단의 방송연구요 교육이 되어왔다. 북한 방송은 우리방송연구자들의 관심 밖에 있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 방송이란 상상할 수도 없었고 방송의 남북교류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없었다. 또 그와같은 논의가 오랜 냉전의 문화속에서 매우 어렵고 두려운 것이었다.

1988년 강현두, 김우룡은 ‘한국방송론’을 펴내면서 북한방송론이라는 독립된 장을 마련했다.<sup>(4)</sup> 통일방송론의 시도였다. 또 강현두, 이창현은 한국방송협회의 방송문화 연구회지에 7회에 걸쳐 북한방송을 연구하는 글을 발표했다. 그 마지막회에서 강현두, 이창현 2사람은 전파를 통한 남북한 방송 교류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개진했다. 즉 “방송문화” 1989년 10월호에서 두 연구자는 “통일지향의 방송을 위하여”라는 글을 통해 통일방송을 위한 단계적 실천론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방송이 지금까지의 분단지향의 매체에서 통일지향의 매체로 거듭나야 된다고 지적하면서 통일 방송으로 가기 위한 실천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던 것이다.

1단계 : 상대방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남, 대북방송의 이념동원을 중지해야한다. 이는 통일한국의 방송을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남, 북한의 이념적 골은 더욱 더 깊어만 질 것이다. 때문에 주체적으로 상대방 주민을 대상으로한 방송을 없애나가야 한다. 북한의 경우 “대남방송”과 “구국의 소리방송”등을 중지해야 할 것이고 남한 역시 “대북방송”이나 “사회교육방송”을 금해야 할 것이다.

2단계 : 남북한 모두 상대방 방송을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전파교란(Jamming)을

(4) 강현두, 김우룡 공편, 『한국 방송론』, 나남, 1989.

이 책에 수록된 ‘북한 방송론’이라는 章(11장)은 이전까지 매스컴 관련서적이나 세미나에서 전무했던 북한 방송을 다룬 장이다.

중지해야 한다. 전파교란을 중지하여 상대방 방송을 시, 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이념적인 무방비 상태가 우려되기는 하나 자신의 이념적 우위를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며 각기 자신의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전파교란에 사용되는 엄청난 비용을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통일프로그램 제작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3단계 : 남북한 모두 특정 프로그램 시간대를 상대방 프로그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가칭 “통일시간대”로 편성해야 한다. 예컨대 뉴스프로그램시간대를 자유롭게 개방함으로써 겸열없는 상대방의 뉴스 보도나 가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방식은 MBC의 “통일전망대”나 KBS의 “남북의 창”등의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단편적인 내용이 아니라 상대방 방송국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보여주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4단계 : 방송생산자의 인적교류를 통해 미디어 이데올로기의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KBS의 “전국은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의 북한지방 방송을 북한 방송기술자나 제작자의 손을 빌어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방식이라든가 3·1운동 관련 다큐멘터리 방송의 공동제작등이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5단계 : 통일채널의 확보 및 통일방송국의 수립이 그것이다. 남북한 모두 통일의 지향을 위해 독립된 기존 채널을 확보하거나 방송국을 수립하여 남북한 방송제작자가 힘을 모아 방송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강현두, 이창현, 1989).

이같은 통일방송을 위한 단계적 실천론은 남북방송의 개방과 교류논의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1989년 11월 18일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는 인천집회 연설에서 “남북 6천 5백만 동포간의 상호이해를 넓히고 신뢰와 동질성의 회복을 빠르게 실현하기 위하여 텔리비전, 라디오의 상호시청 개방을 촉구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김종재의 제의는 노태우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담에서 거론된 바 있으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이 남북한 방송교류 가능성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KBS 노동조합측은 11월 20일 “남북한 방송의 자유시청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김대중 총재의 방송개방제의와 노태우 대통령의 이에대한 동의를 환영했다. 더 나아가 KBS노조는 구체적인 남북방송 교류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방송개방의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 및 관련법 정비
1. 선행적인 대북 비난방송의 중단
1. 방송국의 자율적 방송개방 노력이 필요하며, 방송사 외부의 방송규제 전면 해제

기자협회는 이에 앞서 1989년 11월 2일~4일 “분단극복을 위한 언론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방송을 포함한 전체 언론의 남북한 교류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1989년 11월 3일자로 남북한 방송교류와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했다. 즉 남북기자 교류를 위해 정부가 문호를 개방할 것과 정부당국은 남북방송교류에 장애가 되는 관계법 철폐를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였다.

1989년 말에는 학계와 정계, 방송현업 모두에서 남북한 방송교류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표명으로 이어졌다. 즉 1989년 12월 27일자 언론은 당시 이홍구 통일원 장관의 말을 빌어 “평양방송의 청취 허용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하였다.

이홍구 장관은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이끌어내고 북한에 대한 우리사회의 이해폭을 넓히기 위해 평양방송 등 북한의 라디오방송을 일방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라디오방송에 한해 실시하던 재밍(jamming) 즉 전파방해를 풀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이다.

한편 한국의 기간방송으로서 KBS는 1990년 5월 통일을 대비한 방송과 남북방송교류의 제 기능을 연구하는 ‘남북방송정책연구 소위원회<sup>(5)</sup>’를 발족, 방송교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1990년 말 소위원회의 연구보고서로서 ‘개방과 교류의 길’을 간행했다. 1990년 8월 9일 KBS사장은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정하천위원장에게 이산가족방송과 KBS와 공동으로 제작하는 자연 생태계 TV프로그램의 공동제작을 공개제의하는 한편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에는 『남북 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년 12월 13일)가 남북의 총리에 의해 서명됨으로써 신문 라디오 텔리비전의 상호교류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sup>(6)</sup>

이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의 남북방송교류논의는 학문적으로 “통일방

(5) 이 위원회의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이정웅, 호찬웅, 강현두, 이정춘, 방정배, 이용설, 이내수, 안춘옥, 이수익, 이후재 등으로 학계, 실무계 등의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6) 합의서의 제16조는 다음과 같다.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송을 위한 단계적 실천론 제시”가 되고 “야당의 상호시청 개방제안”으로 정치 문제화되었으며 “정부의 자유시청 채택 가능성 시사”, “방송부와 언론유관단체의 방송과 방송인의 교류추진”, “신문—라디오—텔레비전의 상호 교류 확대”로 이어지는 일련의 논의가 전개됐다.

#### 4. 남북언론교류를 위한 선결 과제

서두에서 말했듯이 북한의 언론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당의 사업에 대한 선전 선동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언론과는 전혀 기능이 다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이나 정무원 기관지인 민주조선을 보더라도 김일성 김정일 관련기사와 당정책 해설, 체제 우월성과 북한발전상 과정 등의 기사가 절반을 넘고 있다. 여기에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는 기사가 20퍼센트 정도를 차지해 북한 관련 외신이나 문화 교양 등의 지면이 차지하는 지면이 6개 면 중 1개면 정도 밖에 안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어 국민들로 하여금 직접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 보안법의 ‘이적 표현물소지’, ‘고무 찬양’ 등의 조항이 있어 통일 관계나 북한 담당 기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88년 9월부터 시행된 ‘북한 및 공산권 국가에 대한 보도요강’ 중에 ‘언론이 자율적으로 보도하지 않아야 할 사항’ 등이 있고 위반할 때에는 정부가 행정적 조치를 가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더욱 조심스럽게 만든다.

이 요강의 ‘국내 언론기관은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며 정부의 대북한 및 대공산권 정책에 최대한 협조토록 한다’는 보도일반 기준을 현재 대부분의 언론기관이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국가 보안법이나 보도 요강의 개폐 없이는 정부의 창구 단일화를 내세운 통일정책이나 북한 보도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치 않을 수 없다(남영진, 1991:13).

방송은 한 사회의 지배 체제를 재생산하는 특성을 지닌다.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담겨있는 방송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사회적 산물이며 사회의 재생산에 기여한다. 방송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은 이러한 이유로 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 방송은 해방후 기본적으로 서로의 사회체제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북한방송은 북한체제의 주체이데올로기를 담아내고 있고 남한방송은 남한체제의 반공이데올로기를 담아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각은 사회성원들을 동원 또는 교화시켜 왔던 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은 그 자신들의 역사성을 갖는 것으로 쉽게 극복하기 힘든 문제들을 함축하고 있다.

또 방송체제는 필연적으로 한 국가의 정치, 군사정보체제와 깊은 연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방송체제의 개방과 교류는 결과적으로 정치 및 군사정보체제의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다. 때문에 방송체제의 개방과 교류는 많은 논의와 속고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방송체제는 한 사회 체제의 재생산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나아가 한 사회의 정치, 군사정보체제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송교류의 많은 한계를 제공하게 된다. 즉 전파방송매체의 개방은 신문과 같은 여타매체의 개방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송교류와 방송개방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다면적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결코 간단한 발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전파매체를 인간의식 확대라고 마땅히 이야기했듯이 (McLuhan, 1964) 오늘날 텔리비전은 인간의식의 확장과 세계의 '지구촌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 이러한 텔리비전은 하나의 민족을 그리고 세계를 동질화 시켜내는 강력한 매체이다. 이와같이 텔리비전이 갖고 있는 동질성 회복의 기능은 바로 남북한의 방송교류의 대전제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방송은 분단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을 위한 기능만을 수행하였지만 지금은 동질성회복을 위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방송사가 방송교류의 주체로서 기능해야 하는 이유이다.

서독의 경우 텔리비전이 독일통일에 가장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 동서독 방송교류는 동서독의 통일이 실현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동서독은 서로 텔리비전의 시청을 허용했기 때문에 상호 동질성이 회복되었고 독일통일 이전에 방송의 통일이 이미 달성되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남북통일에 앞서 방송의 교류와 통일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독일방송교류는 동서독의 직접방송교류가 이루어지기 오래전부터 간접적인 방송교류가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유럽에

서는 오랫동안 두개의 방송공동체가 있었다. 하나는 서유럽의 방송공동체인 European Broadcasting Union(EBU)이고 또 하나는 동유럽의 방송공동체인 Organisation Internationale Radifusion et Television(OIRT)이다.

서유럽 방송공동체인 EBU는 Eurovision이라는 서유럽 공동방송을 하였으며 동유럽 방송공동체인 OIRT는 Intervision이라는 동유럽 공동방송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Eurovision과 Intervision은 1970년 이후 매일 프로그램을 교환하고 있었다. 서유럽 국가와 동유럽 국가들은 이 두 유럽의 방송연맹을 통해 서로 프로그램을 교환하여 시청취하였다 것이다. EBU의 회원인 서독과 OIRT의 회원인 동독은 Eurovision과 Intervision의 프로그램 교환으로 이미 간접적으로는 방송교류를 하고 있었다(Dizard, 1976:84-85).

서독이 속해있는 Eurovision과 동독이 속해있는 Intervision이 서로 프로그램 교류를 통해 동독인은 Eurovision을 시청했으며 서독인은 Intervision을 시청했다. 이렇게 둘, 서독은 독일을 둘러싼 유럽의 기구를 통해 오랫동안 간접적으로 방송교류를 하여 왔던 것이다. 동서독의 텔리비전 상호시청은 이전에서 제 3의 기관을 통한 방송교류에 있었던 것을 볼때 우리의 남북한 방송교류도 한반도 내에서의 직접적인 방송교류 뿐만 아니라 주변의 국제기구나 제 3 지역에서의 복합교류 또는 간접적인 방송교류를 병행추진해야 할 것이다. 방송의 이러한 점을 염두하면서 남북간 방송의 교류 실현을 위해 동북아에 있어서의 새로운 질서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 5. 통일지향의 연론 모색

### —방송의 경우—

현재의 우리방송은 통일지향방송발전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것일까, 또 앞서 언급한 필자의 통일방송으로 가는 5단계에 미루어 볼 때 현재의 남북한 방송은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일까.

남한 방송의 경우 상대방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남, 대북방송의 이념동원을 중지하여야 하는 제 1 단계의 통일 방송은 어느정도 이루어졌다. 남한방송에서의 냉전논리와 이념대결을 위한 대북한 방송은 더이상 과거와 같이 냉전 이데올로기기에 가득차 있지 않다. 라디오와 텔리비전의 대내용 일반채널은 물론 대북한 방송인 사회교육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북한을 비난, 비방

하는 그리고 단점을 과대, 과장하는 내용은 많이 사라졌다. 그런 면에서 최소한 남한의 대북한방송은 이념동원으로서의 대북방송단계는 이미 극복되었다고 하겠다.

이에 비해 북한의 대남방송은 아직도 비방과 비난 그리고 강한 이념동원 체제의 제 1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남북 모두 상대방의 방송청취를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전파교란을 중지하여야하는 2단계의 통일방송의 실현은 요원한 상태이다. 남한에서는 잠시 북한의 대남선전 “평양 FM방송”에 대한 전파교란을 중지하였던 적은 있으나 아직 일반국민은 북한의 라디오나 텔리비전 프로그램의 시청취가 허용되지 않은 단계에 있다. 남한방송은 2단계의 통일방송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전파교란으로 시청취를 차단하지는 않지만 남한의 라디오나 텔리비전을 시청취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라디오의 경우는 방송의 유선화로서 텔리비전의 경우는 우리의 송출방식과는 다른 PAL 방식의 채택에 의해서 사실상 남한의 방송시청은 완전히 차단되고 있다. 이렇게 볼때 남북한은 모두 아직 제 2 단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분단방송이다.

그러한 남한의 방송은 2단계를 미해결로 남겨둔채 매우 초기적이거나 부분적이긴 하지만 제 3 단계와 제 4 단계의 통일방송을 실험하고 있다. 제 3 단계는 남북한이 각각 상대방의 프로그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통일시간대”의 편성단계이다. 현재 남한에서 방송되는 텔리비전 프로그램인 KBS의 ‘남북의 창’과 MBC의 ‘통일 전망대’가 북한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며 이 프로그램의 편성은 ‘통일 시간대’에 비유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같은 편성도 북한방송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편성이기보다는 방송사 외부의 결정에 의한 ‘선택과 편집의 결과’라는 특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북한방송 프로그램의 편성과 내용이 왜곡될 위험성이 있다. 이 점에서 참된 제 3 단계의 통일방송으로 가기 위해서는 방송사내의 자율적 결정에 의한 통일 시간대의 방송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사가 자유롭게 북한의 라디오 텔리비전을 시청취할 수 있고 취사선택하여 방영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 이른바 통일 방송시간대로서의 남북의 창이나 통일전망대는 보다 많은 사람이 시청하는 프라임타임에 과감하게 편성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근자에 이르러 부분적이고 불완전하지만 제 4 단계의 통일방송이 또한 실험되고 있다. 아직 방송 프로그램 생산자의 인적교류는 아니지만 프로그램의 제작 교류가 시도되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제 4 단계의 일부가 실현되고 있다. 즉 프로그램의 교환이라는 방송교류는 아직도 매우 초보적이긴 하지만 1990년 평양과 서울에서 거행된 남북축구 경기 녹화물의 상호교환에서 그 노력이 시작되었다. 평양에서 이루어진 경기의 남한방송을 위한 녹화프로그램과 서울에서 이루어진 경기의 북한방송을 위한 녹화프로그램의 교환이 있었다. 이는 남북방송교류를 위해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비이념적이고 비정치적인 프로그램을 서로 교환할 수 있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이념적이고 비정치적이라고 해서 방송의 공동제작을 할 수 있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방송매체에서의 공동제작작업은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교환보다 복잡한 문제가 얹혀있기 때문이다. 전파매체는 한나라의 정보체제와 맞물려 있다. 특히 방송정보체제와 정치, 군사정보체제가 통합되어 있거나 서로 연결이 밀접한 국가나 사회에서는 방송전파의 내부 개방은 각종 국가정보체제의 개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체제의 개방이나 노출의 위험성이 있는 방송공동제작참여는 현재의 북한과 같은 사회에서는 허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남한방송의 경우라고 쉽게 이루어진다고는 하기 힘들다. 그렇게 볼때 남북한방송의 직접공동제작에는 아직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남북한이 아닌 제 3의 지역, 제 3의 국가에서 방송의 교류와 공동제작의 시작을 모색하고 신뢰구축을 가능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남북한간 서로가 상대방 정보체제의 공개없이 제 3의 지역에서 제 3의 방송시설을 통해 그리고 ‘제 3의 주제나 내용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식인 것이다. 가장 현실적으로 중국이나, 소련등의 제 3의 지역 등을 들 수 있다. 현실적으로 소련의 ‘고려인’방송이나 중국의 ‘조선족’방송을 통한 남북방송인의 교류와 남북방송의 공동제작의 길을 모색 할 수 있다. 이같이 4단계에 이르면 어느정도 통일방송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중국 또는 소련과 같은 제 3 지역에서 제 3의 조직을 통해서 시도해보는 방송교류는 동서독의 직접방송교류에 앞서 있었던 Eurovision과

Intervision을 통한 간접적 방송교류에 비유되는 직접 방송교류의 전재적인 단계일 수 있다. 그만큼 실질적 방송교류는 많은 전재적인 단계가 필요하다.

유럽의 EBU나 OIRT처럼 아시아에는 Asian Broadcasting Union(ABU)이 있다. 그리고 ABU는 Eurovision이나 Intervision처럼 아시아 통합방송인 Asia Vision이 있다. 금년에 북한방송은 ABU의 회원방송이 되었다. 북한도 아시아 공통방송인 Asia Vision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래서 남북한 방송은 Asia-vision에서 방송의 간접적 교류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EBU의 Eurovision과 OIRT의 Intervision의 교류가 동서독의 방송교류의 전초 교류였던 것처럼 남북한방송의 Asiavision의 참여가 남북한 방송교류, 남북한 방송개방, 남북의 통일방송의 전초적 방송교류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앞으로 몇년내에 방송자체의 남북교류가 실질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방송이 정치회담, 체육교류, 통일음악회를 쫓아다니기만 하는 추종자의 방송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한간의 이질성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동질성을 회복할 것인가의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통일을 앞장서서 이끌어내는 그런 방송이어야 한다. 비록 전파의 특성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남북한 방송은 통일운동의 객체가 아니라 이제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시대적인 요청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방송이 갖고 있는 각자의 특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통일지향의 방송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방송체제 속으로 북한의 방송체제를 종속시킬 것이 아니라면 북한의 현존방송 체제를 그들의 입장에서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상호간의 결합가능성을 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스스로도 개방과 개혁의 시대에 부응하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 6. 분단극복을 위한 언론의 역할

한국의 언론이 분단 극복과 통일접근 여론 형성에 있어서 혼란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분단 극복과 관련하여 언론의 제작 원칙이 설명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분단극복이 민족의 지상과제라는 강박감에 사로 잡히게 되면 통일지상주의에 빠지기 쉽게 되고, 언론이 현실적인 남북한 대결구조를 무시하고 이성적인 화합만을 강조하고 나설 경우에는 분단 극복을 도

리어 더디게 하는 부작용을 빗게 만들기도 한다. 이렇듯 언론이 담당해야 할 역할의 혼돈 속에서 최근 정용석 교수는 분단 극복을 위해 언론이 제작상 지켜야 할 5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자유, 민족, 번영, 복지, 평화 등이다(정용석, 1991: 2-4).

남북한은 그동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너무나 이질적인 사회체제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다. 여기서 서로가 거부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공통된 이념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라는 이념이다. 자유는 남북한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념으로 양쪽 모두의 행복과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이념이다. 언론은 이 자유라는 이념 하에 제작활동을 벌려야 한다. 왜냐하면 자유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분단극복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단 극복의 완전한 형태는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마음을 트고 교류 협력하는데서만 가능하다.

의세 의존적 사대사상을 경계하고 민족자결에 의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언론은 항상 민족을 우선 순위로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족의 생존과 자존이 침해되고 강대국의 식민지로 전락될 수 있는 통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통일이 민족 번영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여론을 선도해야 한다. 언론은 무조전적인 통일 주장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잘 지적할 수 있어야 하며 남북한에 공히 번영이 모색되는 분단극복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듯 자유와 번영이 보장될 수 있는 통일방안 모색에 꼭 고려되어야 할 점은 국민들에게 그것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는 방안이다. 아울러 민족 구성원들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 사회복지적 측면도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 원칙 속에서 언론은 전쟁이나 폭력혁명론 등을 경계하고 통일에 있어 평화적인 방안을 적극 견지하고 여론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실질적인 정보전달과 여론형성 기관으로서 언론의 구체적인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 먼저 분단 극복을 위해 언론은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시켜 나가야 한다. 통일问题是 상당히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국제 정세의 이해와 통일 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주장과 대응, 그리고 북한의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언론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제공해 주어야하며 이를 토대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남북한에 있어 통일관과

통일정책의 차이를 정확히 지적하여 국민들로하여금 통일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 다음으로 언론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정보원은 예전처럼 정부 혹은 해외 언론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해외 동포 등에 의해 널리, 소상히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은 북한에 대한 정보의 주요한 통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편견이나 일방적인 부분정보로 또 다른 왜곡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좀 더 과감하게 개방시키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직접 내리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MBC의 ‘통일 전망대’나 KBS의 ‘남북의 창’과 같은 북한 관련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내용도 좀 더 보장이 되고 시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각 언론 기관에서 취급하는 북한 뉴스도 점점 객관적이고 공개적이며 그 양도 늘어 나고 있다. 최근 각 언론사마다 생기는 북한 관련 부서는 바람직한 일이며, 국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북한문제 관련 기획, 특집기사 등이 자주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사나 프로그램 제작 시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북한취재원들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고 북한언론 내용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또 남북의 실상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남북한이 서로 상주특파원을 파견시키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텔레비전에서의 북한 정보 공개는 북한으로 하여금 텔레비전 내용 구성을 수시로 검토케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최근 북한의 텔레비전 뉴스나 오락물이 자기 사회의 소개, 특히 부드러운 일면을 보여주는데 상당히 신경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과거 서독이 동독 방송의 시청을 허용한데서 동독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서독 시청자의 호감을 의식하게 되었다는 점에 유의하면 언론의 북한 정보 전달 기능은 사회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정석홍, 1991: 7).

또한 언론이 중요하게 인식할 문제로는 북한의 실상에 대한 올바른 보도 태도이다. 북한 체제의 변화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입장을 보인다면지 혹은 너무 비관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의 인식에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오늘의 북한을 보는 견해에서 너무 보수 진보의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 우려되는 점도 있다.

북한 뉴스 처리에 있어서도 예전보다 그런대로 객관성을 띠고 있고 자율성도 보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북한 실상 소개에 있어서 아직도 북한 체제의 허구성 모순성을 폭로하는 글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 언론은 북한을 객관화시키고 우리체제와 다른 점에서 북한체제의 실상을 이해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와 더불어 같이 살아갈 대상으로 그 진실성을 이해시키고,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데 그들 체제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와의 이질성의 부각보다는 동질성의 발견에 노력해야 한다(정석홍, 1991: 7) 또한 상호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언론이 보다 더 사실 보도에 충실했어야 하며 특히 신문은 민족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국민적 신념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언론은 남북 대화를 여는 촉매제로서 화해와 포용의 정신으로 보도와 논평에 임해야 한다.

또한 언론은 남과 북이 남북관계 문제를 정권의 유지 내지 자기 합리화를 위해 선전용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언론사들도 통일 문제를 자신의 상업주의 대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제 통일의 위한 발걸음이 국민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되었다. 즉 남북의 교류와 협력이 국민적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고 통일의 논의와 선택을 위한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통일에 관련된 정보 제공과 여론 형성 기능을 맡고 있는 언론의 기능이라는 것은 대단히 막중하다. 따라서 언론은 먼저 환상적 통일주의나 체념적 반통일 의식을 지양하고 북한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 확립과 정확한 정보 제공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

#### 참 고 문 헌

강현두, 김우룡 공편

1989 「한국방송론」, 서울 : 나남.

강현두, 이창현

1989 “통일지향의 방송을 위하여”, 「방송문화」 10월호, 한국방송협회,  
남영진

1991 “통일 의지 확인이 급선무”, 「신문과 방송」 8월호, 한국언론연구원

배순재, 라두림

1967 「신문이론」, 동경: 재일본 조선 언론인 출판협의회.

이정춘, 전석호

1991 「분단국의 통일과 방송정책」, 서울: 칭람.

정석홍

1991 “마르게 알리는 자세 가지길” 「신문과 방송」 8월호, 한국언론연구원  
정용석

1991 “제작 원칙의 설정부터” 「신문과 방송」 8월호, 한국언론연구원  
조선노동당

1985 「출판보도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해설」,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황석현

1990 “북한 보도” 「신문과 방송」 10월호, 한국언론연구원  
Dizard W.P.

1976 Television's Global Networks in Fisher H.D. and Merrill J.C.(eds.),  
*International & Intercultural Communication*, New York: Hastings House  
Publishers.

McLuhan, Marshall

1964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New York: McGraw-Hill.